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택해양경찰서 예방기동계 '경비합정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 보호 및 복합적 해양사고 예방'

 카밀레 · 16시간 전

URL 복사

+이웃추가

평택해양경찰서 예방기동계에서 추진한 사업이 기존 관행을 깨고 창의성, 경제성, 안전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선박화재 진압 모습 (출처 당진소방서)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말, 경비함정 화재 대응하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존 장비와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해상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비함정에서 바닷물(해수)을 분사해 불을 꺾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선박 연료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복합 사고의 위험이 컸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 방제장비 (출처 평택해양경찰서)

이를 인지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잘 쓰이지 않은 장비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았던 '유처리제 살포기(방제장비)'를 소화약제 분사 장비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잘 쓰이지 않은 장비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았던 '유처리제 살포기(방제장비)'를 소화약제 분사 장비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진소방서와 협업해 성능 검증 및 폼 형성 테스트를 완료하며 효능을 확인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쓰이지 않은 소화약제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운항이 정지된 함정에 남아있던 소화약제가 약 7톤. 폐기 직전이었던 이것을 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시험을 의뢰해 사용 가능 판정을 받고 나서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요약

2025.11.10. 소화약제 성능 시험 통과 (사용 기준 충족)

2025.12.16. 당진소방서 합동 소화약제 분사 테스트 및 폼 형성 확인

2025.12.~2026.01. 평택서 및 인천서 소화약제 회수 및 재배치 완료



화재 훈련하는 해양경찰 (출처 해양경찰청)

사업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예산 절감과 대응력 강화, 복합 사고 예방을 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약 4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업이 없었다면 남아있던 소화약제를 폐기하고 새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 소형 경비함정의 화재 대응 역량을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수만 사용할 때보다 화재 진압 시간을 약 80% 단축하여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평택서 함정 10척에 소화약제를 배치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도 4톤을 지원하여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끝으로 신속한 진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 침몰이나 해양 오염 등 2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해양경찰청 주관 해양오염방제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러 상들을 수상한 평택해양경찰서 (출처 해양경찰청)

이번 사례는 버려질 뻔한 소화약제를 재활용하고 기존 방제 장비를 화재 진압용으로 전환하여 돈은 아끼고 불은 더 빨리 끄게 된 똑똑한 행정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공단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장비의 성능을 개관적으로 검증하고 인력을 지원받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준 것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여러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